

모아시오, 50억 규모 한류콘텐츠 VR제작

중국 창의과학기술유한공사와 MOU 체결...콘서트·미니드라마·게임 등 진출 교두보 마련

전북도 문화콘텐츠 사업이 중화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함에 따라 도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와 도내 콘텐츠 개발 업체인 (주)모아시오(대표 이경범) 등은 중국 동관사에 위치한 創意奇兵科技(창의과학기술유한공사)와 문화콘텐츠 및 기술 교류 업무 협약과 50억 규모의 한류콘텐츠 VR 제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V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는 VR기기의 보급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 및 대중화되는 분야로 새로운 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VR 콘텐츠 사업은 게임, 영상 교육,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재)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전북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축인 콘텐츠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기반 마련 중에 있다.

이런 노력 중에 도는 도내 콘텐츠 관련기업이 중국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創意奇兵科技와 ▲양 기관간 문화콘텐츠 및 기술 교류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 정보 교류 ▲기타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콘텐츠 및 기술교류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으로 (주)모아시오는 한류콘서트, 한류스타와의 미니드라마, 게임 등을 VR콘텐츠로 제작하고, 제작된 한류콘텐츠는 創意奇兵科技를 통해 4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현지화 되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도정의 기본철학인 '무실역행(務實力行)'을 실천하듯 전라북도와 진흥원의 끊임 없는 노력과 지원책 마련으로 도내 콘텐츠 기업이 국내 최초로 한류콘텐츠 VR제작 계약을 성사 시켰다는 반 사함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콘텐츠 및 기술교류 업무 협약'을 맺었다."

실용화(VR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의 상업화)를 선점해 도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진출의 새 지평을 연 날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진흥원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시장진출 전략으로 2015년 아시아권역의 대만 소프트웨어 드사와의 MOU를 통한 전북 글로벌게 임센터 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유럽권역의 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와 스웨덴 게임클러스터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콘텐츠가 유럽 시장에 진출을 위한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

/정영수기자

택시 바가지요금 3차례 적발시 정부, 사업면허 처분

정부가 택시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다 3차례 적발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 부당요금 수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1차례 위반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90일, 2차례 위반의 경우 운영정지 180일, 2년 이내 3차례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기준에는 1차례 위반의 경우 운영정지 60일, 2차례 위반에 대해선 운영정지 90일, 3차례 위반 시 운영정지 180일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일반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부당요금 위반 횟수를 지수화해 횟수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등으로 처분을 강화했다.

기준에는 1차례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례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3차례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180일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적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성주기자



도의회 임시회 개최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329회 임시회 개최식 국민의를 하고 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 3월말 출범 준비 순조

전북 고향·부안군 해상치안을 담당하게 될 부안해양경서 신설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간 고명석)은 올해 3월말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개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서는 서해지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와 새만금내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해상치안수요가 급증되어 지난해 8월 행정부와 기재부 검토를 거쳐 신설이 확정됐다.

관할 해역은 부안군 가력도 갈문부 단에서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까지 약 2,683.2km의 해역의 치안을 관할하게 되며, 조직은 서장(총경 전현명 예정)을 비롯한 4개과, 3개 행정센터, 6척의 중·소형 함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영수기자

전북도 인권지킴이단 3월 7일까지 공개 모집

전북도가 인권전복을 구축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공개 모집중에 있다. 오늘 전북도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인권의 제를 발굴하고자 열린 도정차원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2월15일부터 3월7일까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지킴이단은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결성

하는 조직이다. 각 지역실정에 밝고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을 중심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도 인권팀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은 소통과 참여로 체감하는 인권행정의 기초가 될 것이며, 전북도 구석구석의 인권문제를 제보해 해결하는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고창무장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안전관리 점검

전북도는 16일 고창무장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및 악취 방지 등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 사후관리중인 매몰지 중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사례는 없으며 안전관리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조성 매몰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 살처분 완료 후 3년간 관리토록 하고 처음 2주간은 주 2~3회, 6월까지 월 1회,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랜더링 장비를 이용 차후 SI 살처분 시 매몰지 없는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 잔재물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매몰지 점검을 통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매몰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매몰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도, 물수요 관리 계획 수립 착수

사용실태·낭비요인 조사 등 물부족 사태 대비

전북도는 16일 물 사용자의 낭비요인 제거, 물 절약 인프라 확충 등 수요관리 중심 정책을 통해 장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3단계(2016년~2020년)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수도법 제6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1인당 적정 물 사용량을 고려, 관할 시·군외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연차별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정책수단 도출, 절수설비 기기 보급, 물 사용실태·낭비요인 조사, 물 절약 교육·홍보, 수도요금 체계 등 물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는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유수 수량 늘리기, 절수설비 등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급자중심의 관리계획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수요관리 중심(DSM, demand side management)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은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인 반면 수자원 확보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자원 확보는 물론 물 절약 등 물 수요요약이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2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에서 먹는물까지 제한급수를 실시 하였으며 도내에서도 주요 취수원 저수율이 10%이하로 떨어져 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나석훈 환경복지국장은 "이번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실현되어 앞으로는 물이라는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나아가 수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 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 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턴트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만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정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